



사람

탤런트 김민중

‘권’의 스타 국제포교사!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꽃미남 연예인 김민중(38, 남성듀오 프로젝트 그룹 ‘더 블루’의 멤버였던 시절부터 ‘권(만)’자 목걸이와 염주를 하고 당당하게 브라운관을 누볐던 그가 산사를 찾는다.



김민중 <현대불교기자사진>

10월 24~25일 공주 마곡사와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 일대에서 열리는 ‘김민중과 보내는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인 마곡사’ 행사에는 한류스타 김민중을 만나러 온 일본 팬들로 북적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한 일본 팬들은 마곡사 견학, 108염주 만들기, 불화 그리기, 사찰요리 맛보기, 참선 및 명상, 토크쇼 및 미니 라이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마곡사에서 일본팬 만나

시간 날 때마다 사찰찾아

방승계와 영화계 등에서는 김민중이 ‘불자’인 것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그의 불심은 깊다. 김민중은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서울 능인선원, 설악산 백담사, 봉정암 등을 찾았다. 그의 불심은 불교계에서도 일찍이 인정했다. 1999년 ‘신도증 갖기 운동’에 무료 모델로 출연, 제10회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불자가수회 회원으로도 활동, 불교 음악 앨범 ‘인연’에도 동참했다. 또 지난해에는 모터스 월드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김민중은 연예활동 만큼이나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는 불심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 겸 가수로 20년간 꾸준한 활동을 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김민중은 2008년 일본에서 공식 팬클럽 ‘SKY LOVE JAPAN’이 창단되는 등 한류스타로도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MBC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 등에서 그의 불심 만큼이나 깊은 연기와 가수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하고 있다.

마곡사에서 일본팬들과 한일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한류스타 김민중씨의 모습에서 1000년전 불법을 전하기 위해 도일(渡日)의 수고로움을 마다않았던 스님들의 모습을 본다. 이상연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파행 불가피

중앙선관위 “후보 3명 자격 인정 못해”... 3후보 “공고 후 규칙제정은 불법” 강력 대응

9월 7일 예정된 제24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가 후보자 자격 시비로 논란에 휩싸여 선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복수추천’이 논란 핵심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는 8월 27일 총무원장선거 후보접수자 4인에 대한 심사결과 인공(前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제외한 지허(금동사 주지)·대은(前총회 부의장)·도산(보우승가회 회장) 스님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보등록시 중앙종회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지만,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돼 실제 추천인원에 미달한다는 것이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8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선거규칙을 새로 제정했으며, 그 규칙을 근거로 했다 고 밝혔다. 총무원장선거법은 중복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공고한 8월 17일까지 없던 규칙을 선거가 개시된 이후 제정한 것이다. 선거 규칙 제정 과정에서 예고나 공고가 없었고, 후보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도 이에 대한 안내나 고지가 없어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대은·지허·도산 스님 “선거중립 위반 책임져야”

선관위에 의해 단일후보로 확정된 인공 스님을 제외한 세 후보자 캠프에서는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며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은·도산 스님과 지허 스님 대리인은 8월 27일 저녁 종로구 낙원동 해동불교대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헌종법에 의거한 법규 위원회에 제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선거세칙 결정 효력정지 및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내는 등 사회법에 호소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스님은 공동성명서에서 “중헌종법에는 ‘종회의원 10인의 추천을 받는다’는 조항 외에 어떠한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복수추천 무효’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세 스님은 또 “8월 17일 선거공고에 이은 21일 선거규칙 제정, 주말이틀을 지나 24일 후보자 등록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선거 규칙 제정의 일정은 중헌종법을 무시해 우리 세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횡포”라고 성토했다.

세 스님은 “입후보자인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놓고도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들이 출마한 선거관리를 담당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종단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원장 보경 스님과 인공

스님 선거캠프에 참여한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은 스님과 종책위원장 자월 스님에 대해 선거법상의 ‘중무원 선거개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덧붙였다.

#인공 스님 “선거일정 예정대로”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단독 후보’로 인정받은 인공 스님은 선거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공 스님은 28일 오전 서울 봉원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공약을 발표한 후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월은 스님과 종책위원장 자월 스님, 봉원사 주지 은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인공 스님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자격 결정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적법한 절차로 선거규칙을 만들어 시행한 만큼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자월 스님은 “우리는 8월 17일 선거공고 후 19~20일 종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종회의원 28명의 추천을 미리 받아서 의도적으로 다른 후보의 등록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상대 후보들도 ‘1인 1추천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당한 추천을 무효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월은 스

님은 “중헌종법을 제정할 당시 종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후보 검증과 규칙 제정의 권한을 가진 선관위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무투표로 당선

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인공 스님은 “9월 7일 열리는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이 무투표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며 “선거에 인해 관용을 베풀 상황이 아니기에 7일 종회에 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선거관리를 종도 여망 부응

중앙선관위에 의해 단독후보로 인정받은 인공 스님과 후보자격을 박탈된 세 스님간의 의견 절충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사회법 제소와 그로 인한 선거일정 중단, 종단 분규의 후유증까지 우려된다. 세 후보자 선거캠프에서는 종정 해초 스님이 원만한 선거일정 마무리를 위해 ‘유시(諭示)’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김성우·노덕현 기자



8·27법불교대회 1주년을 맞아 8월 27일 법불교대회 핵심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관 스님이 종교편향 종식에 더욱 앞장서자는 당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방구편
부당한 방법으로
자식과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성공을 탐내지 마라.

금주의 **HOT**.....

 해정 스님 14선지식	 명진 스님 08불자들	 이경제 20새연재
---	---	---

태고종단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 제24대 총무원장 선거의 잘못된 절차와 방법에 즈음하여 -

우리 속담에 “눈감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은 수단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인을 넘어 인천(人天)의 스승임을 자부하는 종단의 수행자(僧侶)가 이러한 ‘얕은 꾀’를 써서 사사로운 이익을 획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종단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아시다시피 태고종단에서는 제98회 임시중앙종회(2009.8.11)에서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사퇴 발표와 그에 따른 총무원장 보궐선거가 오는 9월 7일자로 결의되고, 지난 8월 24일부터 3일간 제24대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태고종단의 모든 불제자와 종도들은 이번 24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여 최근 우리 종단에 불어 닥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바라고 자못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보경 이하 선관위)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이번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격 심사에서 후보 복수추천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등록후보 4명 중 인공스님 1인에게만 후보자격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본종의 중헌종법에 명기된 ‘총무원장 선거법’에는 “중복 추천을 제한 한다”고 하는 아무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공고한 8월 17일까지도 없었던 선거운영 규칙을 선관위가 갑자기 8월 21일 회의에서 새로이 선거규칙을 만들어 이번 선거 후보들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밝힌 것(불교닷컴 2009.8.27일 기사)은 명명백백한 선관위의 크나큰 잘못입니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중앙종회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본종 선거법에서는 분명히 ‘후보자 복수 추천’이라는 법령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제24대 총무원장 후보등록자대은스님, 지허스님, 도산스님에게 일방적으로 ‘입후보자들이 받은 추천이 중복되어 실제 추천 인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것(불교닷컴 2009.8.27일 기사)은 본종의 중헌종법을 무시한 해중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태고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잘 이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태고종조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태고종단의 법맥과 전통 그리고 문화를 계승해온 태고종도들의 수행의지와 중헌종법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단의 종지종풍과 중헌종법을 무시한 채 개인적으로 입신양명만을 꾀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태고종단을 중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가 이러한 제도와 법령이 필요하였다면, 먼저 태고종도들에게 충분히 고지(告知)하고 공개 절차와 방법으로 이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후보들에게조차 공지(告知)하는 노력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선관위가 8월 21일 스스로 정한 선거 세칙을 종단기관의 의결구조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단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물론, 종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조차 공지를 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24대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에 임후보한 하(下記)의 후보들은 이번에 선관위가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작태를 접하면서, 공명정대한 선거업무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특정후보를 총무원장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아주 얕은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일부인사들이 이번 총무원장 선거 국면에서 자행하는 선거 세칙의 왜곡과 공수가 판치는 총무원장 선거의 결과를 논외(論外)로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와 행동, 종단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 종도들에게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주지 않을까? 월각 눈물을 쏟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불교 전통종단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과 포교, 그리고 복지문화 등을 위해 봉직한 후보자들의 잘못일까요?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 나선 등록 후보자의 부덕함일까요? 종단이 위란(危亂)에 처하면 분연히 일어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올바른 종도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세가 아닌지요.

저희 후보자들은 중헌(中憲)어린 마음으로 종단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를 서원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세로 종단의 중흥을 이루고자 발원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정법(正法)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부터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원한다면, 중헌종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례도 없이 밀실 결의로만 이번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르려자 할일이 된 선관위는 그 결정사항을 당장 철회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방해하고 종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종도와 몇몇 인사들에게는 스스로 발로참회하시기를 충언 드립니다.

끝으로 태고종단의 전 종도께서는 이번 선거가 종단의 화합과 안정 그리고 종단의 전통을 잇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2009)년 8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자

정 대 은
정 지 허
이 도 산